

# 하나님께 맡기라

성경 누가복음 2:41-52

##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하루 되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 찬양

### 1 수 많은 무리들 줄지어(은혜의 찬양 292장)

- 1 수 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 2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후렴]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 2 주 예수 크신 사랑(찬송가 205장)

- 1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 주시오  
저 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 주시오
- 2 아침의 이슬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 주시오



- 3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 주시오
- 4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 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 주시오

[후렴]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 주시오

## 말씀 읽기 누가복음 2:41-52

- 41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 42 예수께서 열두 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 43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 44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 45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 46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 47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 48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 49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 50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 51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 52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 본문 배경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곧바로 성년 시절을 말하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과 똑같이 성장기를 거치셨음을 확증합니다. 본문은 열두 살의 예수님의 모습을 다룹니다. 모든 유대 남성은 관례적으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부모 역시 관례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길에 오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가족들은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예수님도 함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무리를 지어 가며, 아이들은 부모 중 한 사람을 따라 이동하는 관습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룻길을 간 후에야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없음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찾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삼 일이 지나 만난 예수님은 부모의 걱정과 달리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교육 방법에 따라 유대 랍비들과 토론하신 것입니다. 랍비들은 열두 살의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듣고 놀라워합니다.

마리아는 놀라움과 걱정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왜 자신을 찾았는지 반문 하시며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49b절).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맡겨진 일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 내려가셔서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지적, 육체적 성장뿐 아니라 영적 성장을 해야 합니다.

### 말씀 관찰

#### 1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과 부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41-49절)

**답**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사흘 후에 찾았습니다.

**해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았지만, 부모는 이를 몰랐습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무리를 지어 가며, 아이들은 부모 중 한 사람을 따라 이동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님이 없는 것을 깨닫고 찾아 보니 성전에서 다른 선생들과 토론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랐습니다(47절).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49절)라고 말할 때, 요셉과 마리아는 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는 이를 기록하며 열두 살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메시아임을 알렸습니다.

#### 2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가셨나요?(52절)

**답**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해설** 누가는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 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말합니다(52절). 이는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도 성장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모든 성장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부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 잠시 그들을 맡아서 양육하는 대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자녀들이 놓인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주시고 양육해 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기도 하되 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 말씀 적용

1 신앙의 성장을 위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

2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

### 말씀 암송

## 10-2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 가며

누가복음 2장 52절

작곡 이진희

D A/C# Bm7 Bm7/A G A(sus4)

예수 는 지 혜 와 키 가 자 라 가 며 하 나 님 과 사 람 에 게

4 Em7 A(sus4) D

더 욱 사 랑 스 러 워 가 시 니 라

7 Em7 A(sus4) D

누 가 복 음 이 장 오 십 이 절 말 씀 아 멘 -



### 가정예배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망설임 없이 맡겨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